

Strategy

3년 연속 하락한 9월 KOSPI. 올해는 관촬을까?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S&P500, KOSPI 9월 약세 반복. 법인세 납부 & 유대교 신년 = 유동성 위축 영향
- 9월 18일 FOMC, 20일 BOJ 전후 엔화 강세 재개시 엔캐리 매물 압력 부담 가중
- 추석 연휴 전 KOSPI 2,700선 돌파는 리스크 관리 강화, 현금비중 확대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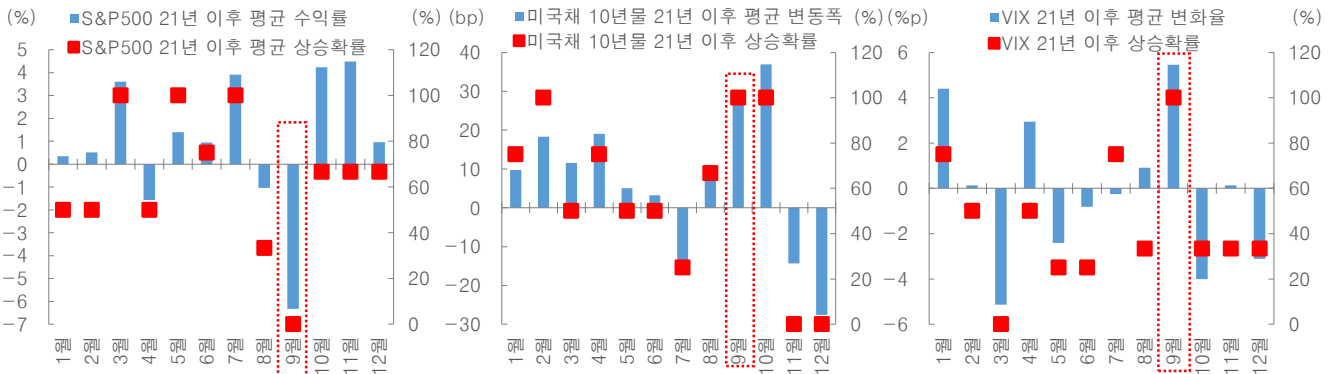
9월이 시작되었다. 추석 연휴가 있고,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달갑지 않은 달이다. 최근 3년 동안은 물론, 2000년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증시가 9월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미국 S&P500은 2000년 이후 9월 평균 수익률은 -1.65%, 상승확률도 45.8%로 연중 최저수준이다. 21년 이후 S&P500 9월 평균 수익률도 -6.32%, 상승확률은 0%이다. KOSPI도 2000년 이후 9월 평균 수익률은 -0.92%로 연 중 두번째로 낮고, 21년 이후에는 -6.82% 평균 수익률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주식시장의 9월 계절성이 채권금리와 VIX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채권금리 반등이 유동성,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자극하며 증시 조정에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21년 이후 9월, 10월에는 100% 확률로 평균 30bp 이상 미국채 10년물이 상승했다. VIX는 증시 선행성을 반영하며 2000년 이후 8월, 9월 상승 패턴을 반복해왔다. 21년 이후 VIX는 9월에 100% 확률로 평균 5%p 이상 반등했다.

S&P500은 4월 소득세 납부, 9월 법인세 납부 시점에 시중 유동성 위축 영향으로 유독 부진했다. 특히, 9월 중순 ~ 10월 초 로쉬 하사나(유대교 신년)가 있다. 유대인 투자자들에게는 연말이다. 따라서 수익률 확정을 위한 차익실현, 펀드 북 클로징이 발생하며 시중 유동성 위축이 더욱 극심해질 수 밖에 없다. 24년 로쉬 하사나는 10월 2일 ~ 4일이다. 게다가 올해는 9월 18일 FOMC, 20일 BOJ, 20 ~ 29일 중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다. 유동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엔화 강세 압력 확대시 엔캐리 청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24년 9월 후반부에는 증시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9월 첫째주 KOSPI는 2주 동안의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과정을 뒤로 하고 반등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강한 한국 수출 모멘텀과 미국 제조업 지수 반등, 고용지표 개선 등을 확인하며 KOSPI는 2,700 돌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추석 연휴 전 KOSPI 2,700선 돌파시도는 리스크 관리 강화, 현금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S&P500 9월 계절성. 3년 연속 채권금리 반등, 변동성 확대, 증시 급락(평균 -6.32%). 유동성 위축 영향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